



무안낙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본격 착공

무안읍 성남1길 172 일원

무안군은 29일 무안낙지특화거리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에서 명성 있는 무안낙지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1길 172 (터미널에서 LG전자 사이) 일원이며 벽화와 간판, 수족관 등 디자인부분 교체는 내년 2월 말까지 우선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안읍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정비사업으로 노후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도블럭과 하수구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낙지거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 조직운영 우수

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신안군은 '2020년 조직운영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자치체와 226개 기초자치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혁신, 효율화 등 조직관리분야를 평가한 결과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신안군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기관표창은 신안군이 도서로 형성된 지역적 특성과 서울시 면적의 2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으로 교통체계가 열악해 섬주민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담기관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여 조직개편의 능률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공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으로 군민행정부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은 신안군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동취재본부

영광서 만든 '김자반' 대만간다

대마산단 내 (주)태산알앤디, 야채김자반볶음 2만봉지 첫 수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특허 등록 제조방법 생산



(주)태산알앤디(대표 김태선)가 지난 24일 대만에 위치한 프랑스 대형 할인점인 까르푸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채 김자반 볶음'이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 초도 물량은 총 1,043박스(1box 기준 20봉지) 1천 4백만원 규모로 2021년부터 대만 까르푸 100

여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조미김 생산 전문업체인 (주)태산알앤디는 영광군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투자협약을 맺고 2020년 10월부터 신제품 'The 맛있는 김부각', '돌 김자반' 등 20여개 제품을 출시하여 국내 유명 식료품점,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제품과 특허 등록한 제조방법으로 조미김류 수요가 늘어난 세계 김 산업의 수출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1년 만에 실현하게 된 것이다.

것이다.

(주)태산알앤디 김태선 대표는 "현재 월 2~3회로 수출되는 물량을 내년 3월부터는 월 5회 이상 수출 될 수 있도록 가동률을 높이고 추가 구인 모집을 통해 지속성장을 목표로 업계를 리드해나가는 선도 기업이 되겠다."고 2021년의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에 위치한 (주)대풍이브이자동차는 지난 6월 필리핀에 수출할 전기삼륜차 Echo-ev(DE101) 5천대 중 1차 물량인 100대를 수출 하여 해외 진출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지역대표 먹거리 '달빛 무화과 쌀빵' 출시

영암읍 브래드칸 베이커리·삼호읍 베이커리 나영 1월1일부터 판매



영암군이 지역대표 먹거리로 '달빛 무화과 쌀빵'을 개발하여 출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달빛

무화과 쌀빵'은 기 협약체결이 완료된 2개업소(영암읍 브래드칸 베이커리, 삼호읍 베이커리 나영)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달빛무화과 쌀빵'은 섬유질이 풍부한 무화과와 쌀가루 100%를 사용하여 소화도 잘되고 밀가루 알러지 걱정이 없으며 간식과 식사대용으로도 좋은 무화과 모양의 빵이다.

관광객들이 영암에 오면 누구나 맛볼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포장해 갈 수 있는 대표 먹거리로 개발되었으며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암군의 지역특산물인 신비의 과일 무화과를 이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널리 알려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달빛 무화과 쌀빵이 영암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맛과 영양, 홍보와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운영 앞뒤

무안군은 농공단지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전환하고 정주공간 마련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계농공단지 내에 근

로자 기숙사를 신축하여 내년 1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청계면 청수리에 건립을 시작한 근로자 기숙사는

지상 3층 건축 면적 1402.8㎡ 규모로 총 28명이 생활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으로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물론 주거비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항,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목포항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12월 29일 고시됐다.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1~30)은 노후·유류화된 항만과 그 주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1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 13개 항만, 19개 대상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유류 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친환경 고부가 가치 항만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설을 배치하여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변쪽은 수변상가 및 방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친수공간 및 주차공간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입가능 시설로는 도로변 사유지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1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다른 대상지인 목포 남항은 주변 삼학도 및 문화의 거리, 갯바위 등 관광수요와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및 원도심 회복과 단지내 정주여건 마련이 가능한 '원도심 활력제고 거점'으로 추진된다.

남항 서측 부지는 복합도심지구,

내항, 지역생활·문화거점...남항, 원도심 활력제고 거점 개발

노후·유류상태 항만·주변 체계적인 개발·활성화 기반 구축

활용된다.

목포항 대상지인 내항의 경우 2021년 수협 위판 관련 시설이 북항으로 이전되면 기존 위판장 인근 지역이 급속한 공동화 진행이 예측되어 목포시는 그간 시의 정체성인 항구도시 기능유지와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역주민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많은 시민·전문가들과 소통해 왔다.

이런 소통의 결과로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는 목포내항과 남항의 문제점인 원도심과 단절, 노후·유류화에 대한 슬럼화, 친환경·안전육구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영되어 있다.

목포 내항은 수협이전부지에 소규모 핵심자족시설을 도입해 배후지 개발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역생활 문화거점'으로 수협이전부지 도로변쪽은 주변 관광시설 및 여객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지원기능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해 상업 및 판매시

복합항만지구로 주거·상업·마리나·해양체험시설이, 동측 부지는 교육연구지구, 공공시설지구로 교육연구시설, R&D 시설, 공원, 녹지, 수변시설이 도입가능하다.

특히, 남항은 미래형 친환경 선박 개발과 실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형 친환경선박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지원해 가면서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업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내항은 여객운송기능뿐 아니라 기존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연결하고 있는 기존 도로와 경계로 바다 쪽으로 상생 친수공간과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남항은 복합기능 도입을 통한 정주기능 회복과 원도심 활력을 부여할 계획으로 대상지의 자원 및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